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

(마 13:31-35)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항상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난해한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 할 때 그 사람이 '이것은 마치...'하면서 어떤 비유나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설교하시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11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은 헬라어로 'mysterion'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mystery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신비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안 보여주고 우리끼리만 아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14-15절).

이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셨다는 표현보다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본성과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그러나 너희 눈은 밝은데도,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16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귀는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같은 의인들도 감히 볼 수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매일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믿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된 천국의 비밀로 인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아직 비밀로 남아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웃들이 우리 입술의 증거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들의 깨달음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불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하늘의 소망과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Jesus who uses Parables

(Matt 13:31-35)

Whenever Jesus teaches, he uses parables. When we have a difficult problem with someone, we should explain, he is 'like this', as an example or a parable, they can easily understand.

Jesus says to them who dubiously think his sermons are parables: "The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given to you, but not to them" (v. 11). This is why it is only given for God's people who know the truth about the Kingdom of heaven.

Here the word 'secret' is 'mysterion' in Hebrew which referred to English 'mystery'. Therefore, the translation from secret to mystery conveys its meaning properly. The secret is keeping confidential matters to ourselves. But even though Jesus has given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heaven to everyone, there are some who see it and others do not. That is why it is correct that it is not a secret but a mystery.

"In them is fulfilled the prophecy of Isaiah: You will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you will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For this people's heart has become calloused; they hardly hear with their ears, and they have closed their eyes.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I would heal them" (vv. 14-15).

This quote from Isaiah 6 means that it is not the expression of God but the human nature, motive, and attitude of those who don't understand God's truth by themselves.

Subsequently, Jesus says, "But blessed are your eyes because they see, and your ears because they hear" (v. 16). We can see the kingdom with our eyes, and hear and realize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heaven with our ears.

The great prophets, Samuel, Elijah, Isaiah, Jeremiah, Daniel, Abraham, Isaac, Jacob, Joseph, and David did not dare to see, and hear such a mission. But blessed are we because we see the work of God's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and see, hear, and believe the mission of spirit that moves our spirit and mind every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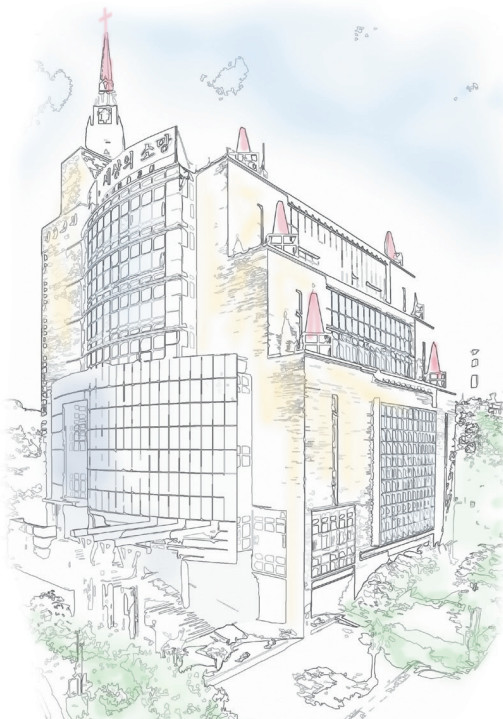
Knowing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heaven, we are not always happy. It is because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remains a secret for our family and neighbors.

My beloved Christians,

If we can give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our parents and neighbors who do not yet believe in God with the witness of our mouth, how thankful we will be!

Therefore, we are not pleased only with enlightenment, and we never give up on the poor spirits who do not yet realize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should lead them before the Lord.

By possessing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heaven within us,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enjoy an abundant grace and desire for a heavenly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항존직 선거 일정 확정되다

5월4일 (주) 제직회 : 13대 장로후보 20명 공천

5월18일 (주) 공동의회 : 13대 장로, 14대 집사, 13대 권사 투표

금년도 항존직 선거일정이 확정되었다. 금년에는 13대 장로 10명과 14대 집사 및 13대 권사를 선출하는 선거가 5월 중에 실시된다.

5월4일 주일 찬양예배 후 실시되는 제직회에서는 전산투표를 통하여 13대 장로후보 20명을 공천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5월11일 순례자에 발표한다. 단, 장로 후보는 집사와 시무권사를 대상으로 하되 2013년 임직된 자들과 2014년 은퇴 예정자들은 교회 규정상 제외된다.

또한 오늘 당회에서 확정된 14대 집사 13대 권사 후보도 같은 날 순례자에 발표된다. 성도들은 한 주간 제직회와 당회에서 확정된 후보들을 놓고 깊은 기도로 준비하여 5월18일 주일 찬양예배 후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13대 장로 10명과 14대 집사 및 13대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전산투표)를 하게 된다.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 중에 항존직 선거가 실시되도록 기도한다.

## 2014 한마음 한가족축제 취소하기로

'한마음 한가족축제' 편성 예산은 전액 구호성금으로

우리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인 '2014 한마음 한가족축제'는 현재 진도해역 세월호 침몰 사고의 슬픔에 동참하는 의미로 취소한다.

'한마음 한가족축제'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전액 세월호 침몰 사고 구호성금으로 기부한다.

## 호산나대학 학생,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IT Festival 입상

경기도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IT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축제인 'KT와 함께하는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IT Festival'에서 호산나 대학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수상하였다.

도내 3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호산나대학의 11명이 참여하여 MS경진대회 부문 우수상(정신엽), 데스크탑 정보검색대회 부문 최우수상(홍진혁), 우수상(이종오)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다.

2개월 동안 점심시간과 일과 후에 자신의 여가 시간을 반납하며 꾸준히 연습해준 대회 참가 학생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며 입상학생들에게는 다시 한 번 축하를 보낸다.



## B.M.W.운동에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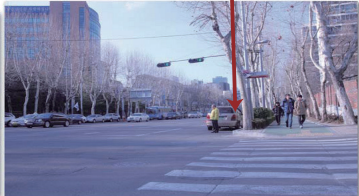
공휴일 종교행사를 위해 강남구청에서는 교회인근 도로(삼성로)변에 일정시간 주차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구역에 일일주차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변도로 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도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 절대주차금지구역 내 주차행위 금지
- 절대주차금지구역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유예구간 외 지역 등

"버스정류장 전후 20미터 구간은 절대주차금지" 이곳에 차를 대는 바람에 버스기사와 뒤따라오던 차량운전자들도 교회로 향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은마아파트입구코너 주차 금지"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28)

(문 128) 욥은 역사적 인물인가 아니면 허구적 영웅인가요?

(답) 욥기서 42 장 가운데 39장이 시적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욥이 당한 재앙과 고통과 회복이 초자연적 힘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을까?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살았을까 의구심을 가지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심한 고통을 겪은 것을 개인에게 승화시켜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실존과 이야기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로 찾아지고 있습니다.

첫째, 욥1:1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라는 말씀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욥의 이름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겔14:14에 의하면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의 이름이 나온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욥기서의 처음 두 장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구도가 기록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 합니다만 이것은 마4장과 눅4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기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고로 진리인 것입니다.

넷째, 언어학적으로 히브리적 표현보다 아랍어 특성을 가진 용어들이 많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아랍어가 오랫동안 북아라비아 지역에서 통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스는 북아라비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욥기가 허구적 작품이 아니고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역사적 인물 욥의 기사를 기록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약5:11)라고 했습니다. 욥이 궁극적으로 건강과 부와 자녀의 회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물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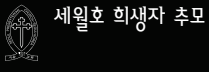
(다음 주 계속)

## 4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

- (필사) 한경신 집사 (16교구)
- (2 독) 장항자 권사 (1교구) 백혜숙 권사 (4교구) 정미경 집사 (13교구)
- (1 독) 이은희 권사 (11교구) 이남북 권사 (5교구) 임윤자 권사 (8교구) 김은순 권사 (10교구) 한상준 집사 (8교구) 장양일 집사 (16교구) 이현순 성도 (11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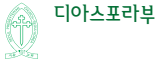




#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딤후1:2)



## 북한선교와 디아스포라부



양인수 집사 (디아스포라부 부장)

“155마일 휴 전선이 없어지고 남북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나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언젠가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한반도를 통일된 민주국가로 세우 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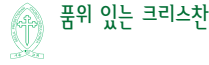
요즘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북한 지하 교회의 성도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통일조국을 허락하시면 암흑과 같은 북한땅을 어떻게 복음화 할 것입니까? 70년 동안 분단되어 문화의 차이, 경제 격차, 사회적 이질감이 너무 큰 저 북한 주민 2400만 명에게 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 라 명하신 땅끝은 저 북한땅이 아닐까요? 한국교회는 통일시대를 얼마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회는 설립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기도해왔는데, 막상 통일이 되었을 때 누구를 보내 어떤 방법으로 북한땅을 복음화하는데 한 모퉁이라도 감당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제는 점검해 보고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서울교회에 10여년전부터 탈북한 새터민들이 모이는 디아스포라부를 세워 주셨습니다. 서울교회는 디아스포라부에 출석하는 새터민 가족들을 통일되는 그날 북한에 파송할 선교사로 양성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고향은 북한에 있으며, 고향에는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인척과 친구가 있습니다.

통일 조국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가장 선두에 설 용사들이 디아스포라부를 통해 수십명 수백명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 소리없는 봉사



홍일성 집사 (식당 관리부 위원)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8층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김치와 국밥이지만 1000여명의 식사준비와 설거지 등 뒷정리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 식사 준비를 하고, 배식하다보면 급히 국을 푸다가 손을 데이기도 합니다. 그릇과 식판, 컵, 수저 등 설거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손마디와 허리가 아파 오고, 식기 세척기에서 나오는 열에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그러나 묵묵히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식당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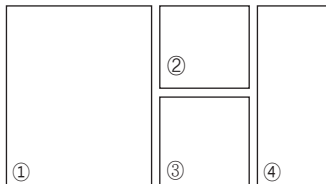
주일 식당은 온전히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운영되며, 올해부터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함께 팀을 이루어 봉사하도록 순례자 동정관에 광고하고 있으니, 자신이 속한 부서가 담당하는 주일에는 빠지지 말고 식당봉사에 도움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간 참여하신 선교회와 전도회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도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음식 남기지 않기    2. 김치접시, 국그릇, 식판 모양대로 반납하기
- 3. 휴지는 쓰레기통에    4. 컵, 수저는 지정된 곳에 반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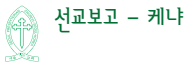


시온찬양대(대장: 이영기 장로)는 지난 4월 12일 해병대 2사단 강화교회를 방문하여 찬양과 안보 특강을 듣고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중대에 위로품을 전달하였다.



- ① 전방중대 내무반 방문 후 위로품 전달
- ② 찬양특강을 담당할 박정선 장로
- ③ 경건회를 인도한 박영준 목사
- ④ 안보특강을 담당할 이갑진 장로





# 음악으로 전하는 복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서울교회에 감사 드리며 보내 주시는 후원금이 마사이지역 에세키 초등학교 170여명이 굶지 않고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이지역 에세키 초등학교는 유치원과정을 포함하여 총 7개 학년(현재 6학년까지)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엔 점심시간에 마당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뛰어 놀거나 배회하며 시간을 때우던 것이 학교에 점심 급식으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고 다른 지역에서 전업자가 올 정도로 소문이 나서 교장과 학부모 대표로 부터 감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의 믿지 않는 마사이 주민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고 있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부엌 개량, 식수 및 설거지시설 등 시급한 일이 많으며 특히 매 주일이면 자체 교회가 없는 주변교회 교인들이 창도 없는 학교교실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뜻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곳 같이 외딴 마사이 마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

습니다.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 마다레 루아라카지역에 교실 2칸과 우물탱크 완공예배를 드린 이후 조금 늦었지만 머릿돌을 교실입구에 새겨 놓았습니다.

건물이름을 서울교회 후원을 기념하여 '서울 음악센터'라 하고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다레(Mathare) 슬럼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와 복음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케냐 아마니 음악학교

저희 8개 지역 195명 아마니 음악학교와 청소년 리더쉽 스쿨, 마사이 에세키초등학교 170명 점심 급식프로그램 또한 아마니 음악학교에서 여러 장르의 음악과 말씀으로 교육하여 초등, 고등학교를 졸업은 하였으나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낼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학생들을, 찬양리더, 찬양사역자, 음악목사, 음악교사로 키워내기 위한 전문대학 과정인 아마니 콘서바토리가 세워지길 위하여 학교 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으며 현재 교

실 한 칸을 빌려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6일~8일에는 전체 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여 2박3일간 말씀과 예배, 음악과 신앙훈련을 위한 위셋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낙형 오정녀 선교사 올림

## 등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4월28일(월) 군선교발전위원회, 미래한국이사회에 참석하고 Bethel성서40주년기념대회에서 축사를 한다. 4월29일(화) 한국로잔위원회 지도자간담회에 참석한다. 5월 1일(목) 전국신학대학생찬양제 개최설교를 한다. 5월 3일(토) 사랑의 쌀운동 조찬기도회, 울란바타르대학 이사회 개최설교를 한다.
- 공연:15교구 신모란 집사 바로크 성악양상을 연주회 4.30(수)PM7:30 영산아트홀
- 독남: 8교구 김홍기 성도 이세롬 성도(4.19) (김광욱 집사 서영희 권사 장남 가정)
- 득녀: 5교구 소원섭성도 박진선 성도(4.17) (소병국 성도 심화숙 권사 장남 가정)
- 주일식당봉사: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427) 엘리야선교회 뱀뱀전도회(54)
- 금주의 식사: 서명철 목사 주원순 성도 가정 (지녀 결혼 감사하며)



마사이 에세키 초등학교(나이로비에서 4시간 거리에 위치) / 하루 종일 굶고 있는 170명의 마사이 어린이들에게 아마니 음악학교 프로그램으로 올 1월부터 매일 점심을 먹고 있다 즐서서 음식을 받고있는 모습



마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아이들



머릿돌: 서울 음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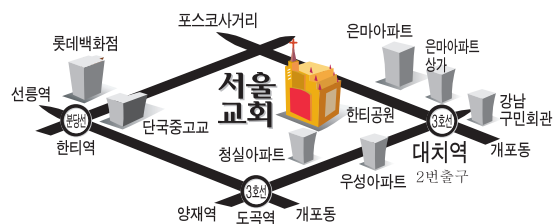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수습이 잘 마칠 수 있도록
2. 2014년 항존직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참여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3. 온 성도님들이 BMW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종종 발생하는 민원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복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배	젊은이 예배	오전 11시 30분
	I 부 예배	오전 11시
새 벽 예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 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